



## 혼틈당선: 윤석열과 보수 재집권 분투

〈Under the Cover of Chaos〉를 통해 본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분석

이종명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 <Under the Cover of Chaos> in South Korea, 2022

Conjunctural Analysi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Jongmyung Lee\*

(Lecturer, Departmen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Cover of Chaos: Trump and the Battle for the American Right*(2018), Lawrence Grossberg uses conjunctural analysis to diagnose the rise of Donald Trump and the new conservative discursive order in American society. Alongside his argument for the need for political intervention at the abstract level, he proposes three analytical terrains as concrete practices of conjunctural analysis. First, reading complex contexts politically in a 'war of positions'; second, mapping the topography of constituted problems in a 'problem space'; and third, articulating with the problem space by appropriating Antonio Gramsci's 'organic crisis'. This is a practice of "conjunctural thinking" as envisioned by Stuart Hall. Specifically, "war of position" reads the discursive politics of post-war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ovements, as well as the economy and culture - particularly as they are discussed on social media. Accordingly, how "anxiety" and "hyperactivity", "isolation" and "expulsion", and "individualistic society" reminiscent of Nazism are connected in the "problem space" dimension, and how "crisis of coordination and relationships", "crisis of authority (knowledge)", and "crisis of social control" are connected in the "organic crisis" dimens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iscourse politics of Korea's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by using the specific model of conjunctural analysis proposed by Grossberg. It goes beyond abstract diagnosis by pointing to the longer-term 'epoch' context, the concepts of 'problem space', and 'war of positions'. As a critical and analytical discussion at the practical level, political speech, economic, and cultural discourse at the "war of positions" level is identified. This includes political campaign rhetoric, media coverage, and audience reaction(in the context of nowadays, replacing 'readers' contributions' with 'online community responses'), as proposed in Stuart Hall's *Policing the Crisis*(1978). Furthermore, it reads the phenomenon of 'anxiety' promotion, 'isolation' and 'deconstruction' in 'youth' and 'gender' discourse, which have emerged in the context of the

---

\* journallest@outlook.com

COVID-19 pandemic, as contextualized in 'problem space', as a conjunction with the crisis. It characterizes Yoon Suk Yeol and South Korea's conservative political régime strategies for retaking power as largel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order over "fairness" and the dismantling of "social trust." In a reality where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of the rise of Trump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o-conservative order in the United States are still looming, it is necessary to read and intervene as a public intellectual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 new discursive order is emerging beyond the change of political forces in Korean society.

**Keywords:** Discourse of Crisis, Articulation, Conjunctural Analysis, Presidential Election, Radical Contextualism

## 1. 들어가며: 위기와 혼란 속 대선을 국면적으로 읽기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집무를 시작했다. 선거일 240일 전인 2021년 7월 12일 대선 예비후보로 출발해 선거 24일 전인 2022년 2월 13일 대선후보 등록에 이어, 2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거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기까지 격동의 시간이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로 임기 후반을 지내는 전임 대통령의 집권 속에서, 여당과 야당은 수호와 공세의 담론 전쟁을 벌였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및 ‘공정’ 논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실책 질타와 대안 제시, 대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윤석열 후보자 및 국민의힘의 선거 공세와, 현 정권의 방역 성공과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방패 삼은 이재명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의 수세(守勢)가 팽팽히 맞섰다. 후보자 및 배우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여느 때보다 불거지면서, 정치적 관심은 물론 피로도도 높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를 방증하듯 77.08%라는 지난 대선에 이은 높은 수준의 관심도가 투표율로 나타났으며, 역대 두 번째 최소 득표 차, 비율로는 0.73% 포인트의 선거 결과를 보였다.

이번 대선은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맥락과, 전통적 정치 집권 세력의 (일시적) 붕괴와 수습 및 재집권이라는 두 가지 혼란의 국면이 중첩됐다. 첫째,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023년 1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3/5에 달하는 3,000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와 3만여 명의 누적 사망자를 낸 초유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둘러싸고 쏟아진 지지와 질타의 반응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위기 팔이(聒耳)’의 상황(이종명, 2021a)은 위기 관리(Policing the Crisis)를 넘어서 부추기기를 통해 위협 국면을 악화일로로 몰아갔다. 둘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른바 촛불 세력의 집권이라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전통적 집권 세력의 (일시적이었으나 당시로서는 괴멸적인) 붕괴와 권력 이양의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그에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의 역할과 위기(이선민·이상길, 2015)에 대한 전반적인 상실에서부터 추동한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 응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권력을 찾기까지의 치열한 담론 투쟁을 벌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이라는 결과를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생명 위협 등의 ‘위기’,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혼란’ 속 복권을 국면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연구가 수행한 다양한 지적 성취 중 ‘국면분석(Conjunctural analysis)’을 핵심 사례로 삼아 작금의 정치적 혼란을 조명한다. 스투어트 홀과 그의 동료들이

영국 사회의 위기 국면과 대처의 집권을 국면적으로 읽어낸 <위기관리(Policing the Crisis)> (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와,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켜온 로렌스 그로스버그가 미국 사회의 국가적 위기 확산과 트럼프의 집권을 국면적으로 살핀 <혼란을 틈타(Under the cover of Chaos)>(Grossberg, 2018)를 전범으로 한다. 이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적 모호성과 한계들에 대한 오랜 비판을 넘어서는 시도다. 그로스버그의 국면분석이 수행한 분석 수준과 절차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집중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현상을 조망하는 다양한 연구들 속에서도 문화연구, 특히 영국의 버밍엄학과(the Birmingham School)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해온 기획들은 현실에 다각도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달리 말하자면 “문화연구는 이른바 가치중립성을 내세우며 요동치는 현실과 상당한 분석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주류 사회과학의 관행과 관성을 급진적으로 넘어서는 차원의 지식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구”(이기형·이종명, 2019, 74쪽)해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미디어 문화연구는 실증주의의 강세 속에서 일상과 대중적 영역에서 연구 문제들을 개진했다.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내재된 담론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 문화정치의 틀 안에서 논의의 진폭을 넓혀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분석적인 거리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가치 개입적인 논의의 결을 살려온 문화연구의 전통을, 한국의 상황에서 변주해낼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홀과 동료들이 수행한 대처리즘의 태동과 영국 사회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다면적 전술로서 활용한 국면분석을, 아울러 그로스버그가 던진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파들의 투쟁을 진단하는 틀로서 활용한 국면분석을, 작금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적 유보를 벗어나, 지식 실천을 통한 “공공성과 변혁을 모색”(이기형·이종명, 2019, 75쪽)한다는 점에서 사유거리를 던지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논의를 풀어내고자 한다. 첫째, 국면분석을 태동시킨 <위기관리>를 우선 조망한다. 특히 ‘위기’라는 맥락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전술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2022년, 지금의 대한민국 국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 이어서 국면분석의 방법론적 정교화를 추구한 <혼란을 틈타>를 짚는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국면분석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논한 연구(Grossberg, 2019)를 기초로 추상 수준에서의 국면에 대한 분절과, 비판적이고 분석적 실천 차원에서의 세 가지 논의, 즉 진지진, 문제적 공간, 유기적 위기 개념을 통한 방법론을 정리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우파들의 집권 분투를 땀땀이 분석한 <혼란을 틈타>를 간략히 살핀다. 정치적 보수 세력들의 국면화 작업과, 선거 현장 등에서 이루어진 발화의 맥락주의적 접근 등이 요체다. 그에 대한 한

국적 적용으로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등장과 한국 보수 세력의 재집권 분투를, 〈혼란을 틈타〉와 그로스버그의 국면분석을 따르며 진단한다.

이 글의 전반부가 ‘리뷰’로서의 양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특정 연구 활동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학계에 공유할 만한 논점으로 제시하고 조명하기 위함이다. 분석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된 학계의 풍토 속에서 개입적으로 문제를 개진하는 미디어 문화연구의, 그중에서도 국면분석의 지적 성취를 작금의 상황에 투영하기를 제언한다. 스투어트 홀이 주장한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한국적 맥락에 적용해봄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른바 국면분석으로 개입하는 학계의 공적 문제 제기과 목소리 내기를 실천하는 바이다.

## 2. 왜 ‘국면분석’인가?: 기존 논의 및 방법론적 전유

### 1) 현실에 대한 국면적 진단: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위기 관리(Policing the Crisis)〉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소위 ‘퍽치기(mugging)’ 사건은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 〈위기 관리〉(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 2013)에서도 짙은 바와 같이 단지 특정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보도된 것일 뿐이었다. 경제적 불황이 전지구적으로 뒤덮은 바로 그 ‘국면’에서, 보수적인 사회 통제의 일반화, 시민들의 정서적 두려움, 긴장, 분노와의 접합(articulation)(Clacke, 2015, p. 277)이 이루어진다. 국가의 지배와 통치 위기를, 퍽치기 사건을 마중물로 삼아 국면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전후 1970년대 초중반까지 유지되어오던 국가의 지배 이념이 위기와 불안감 속에서 흔들림에 따라, 새로운 지배 논리를 창출하고 재편하는 역사적 특수성에 홀과 동료들이 주목한 이유다.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단순 강도가 ‘퍽치기’가 되고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맥락, 이를 ‘국면적’으로 읽어낸 작업은 위기가 ‘불거져가’ 1970년대 영국과, 2020년대 대한민국에 유효한 해석틀이 된다. 요컨대 “1970년대 초중반 영국 사회에서 구성된 지배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변곡점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지배전략의 결합”(이기형·이종명, 2019, 81쪽)을 짚어낸 작업이 바로 홀과 동료들의 〈위기 관리〉인 것이다.

‘국면분석(conjunctural analysis)’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세력들이 형성하는 힘의 관계망과 복수 모순들의 결집,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헤게모니의 생성과 유지 및 재구성

에 관여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적인 동인들의 활성화된 결합”(이기형·이종명, 2019, 77쪽)을 밝히는 일이다. 그에 앞서 ‘국면(conjuncture)’은, “다양한 실천과 과정들의 쟁투와 타협을 통하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균형 및 구조적인 안정을 의미하며 동시에 ‘분열되고 분쟁적인 형태로서의 사회구성체를 의미”(Grossberg, 2006, p. 4: 조영한, 2010, 39쪽에서 재인용)한다.

또한, 국면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들의 모순이나 갈등의 결합과 거시적 위기상황의 도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한 양상과 방향으로 재배치되는 일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유기적인 조합”(이기형·이종명, 2019, 77-78쪽)이다.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접합(articulation)’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담론 내로 서로 통합되느냐에 대한 이해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로 접합되거나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의 방식”(Hall, 1996, pp. 141-142: 조항제, 2008, 22쪽에서 재인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질적인 둘, 혹은 그 이상의 개념이 특정 국면에서 결합되어 하나의 ‘상식(common sense)’이 되는 것이 곧 접합이다.

이들 연구가 한국의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을 이기형과 이종명(2019)이 살핀 바 있다. 간접적으로 ‘국면 읽기’가 수행된 논의로서 이선민과 이상길(2015)의 세월호 사건 관련 연구에 주목했다. 국가와 국민, 집권 세력과 대항 세력이라는 접합될 수 없는 두 개념이 각각과 결합되어 공적 담론 생산 과정에서 위기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세월호 국면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읽고 진단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국면분석의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비조(鼻祖)인 홀과 동료들의 <위기 관리>(2013)에서 그 답을 찾는다. 썩치기(mugging)로 촉발된 사회적 위기가(pp. 7-12), ‘범죄율 증가’의 가시적 지표 부각과 맞물리고(pp. 13-32), 이와 동시에 경찰 및 법원 등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행위자들의 캠페인, 담론 실천(p. 60) 등의 화답과 접합되어, 궁극적으로 미디어의 뉴스 생산을 통한 헤게모니로써의 정착(p.63)까지를 땀땀이 읽어낸 그 작업을 좇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2장에서 논의되는 미디어의 위기 담론 구성에 주목한다. 주요 언론(p. 85), 사설(p. 90), 그리고 타블로이드지(p. 95), 국제지(p. 97), 지역신문(p. 107) 등을 순차적으로, 그러면서도 복합적으로 읽어낸 작업이 주효하다. 특히 주요 언론에서 구성된 ‘썩치기(mugging)’라는 용어의 낯설음 - 미국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처음으로 활용된 맥락 - 을 짚고, ‘사설(editorial)’을 방패삼아 언론의 주장이 펼치는 양태를 진단하며, 이를 통해 일사분란하게 법정 및 경찰 등의 정치 집단의 ‘위기’에 대한 강경 대응과 빈민촌 및 범죄를 주도한 인종, 계급에 대한 냉혹한 손가락질이 접합되는 복합적인 국면을 읽어낸 부분(p. 115)이 핵심이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소위 “여론 획책(orchestrating public opinion)(p.

120)이라는 이름 아래 편집국으로 접수된 편지들의 양상에도 주목했다. 과격한 언동(pp. 128-135)을 분석한 부분은 일견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론 실천과 맞물려 기시감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언론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획책하여 일반적인 무언가, 즉 ‘상식(common sense)’로 만든다는 주장이 작금에도 유효한 해석들이 된다(p. 394). 이는 2013년 35주년 기념 2판에서 부러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국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혹은 더 주요한 맥락이 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일견 국면분석은, 문화연구가 수행해온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와의 변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기실 <위기 관리> 작업에도 일관되게 제기된 문제의식이다. 비판적 담론분석(CDA)가 수행해 온 텍스트, 담론, 사회적 맥락 차원이라는 방법론적 접근은, 그 궤적 그대로 텍스트와 담론 실천을 둘러싼 맥락들에 집중한다. 미디어와 정치적 담론 실천(담화)을 읽는 주요한 방법론으로서 동원된 담론분석의 역할과 의의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와 차별화 된 국면적 읽기라는 것은, 맑시즘적 구조주의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의 점점 속에서 거시적 논의들, 이른바 국면, 이데올로기 효과, 헤게모니 작용 등 “거시적 진단(the big picture)”(이기형·이종명, 2019, 93쪽)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면적으로 부상하는 국가의 강력한 통치 행위와 위로부터의 담론 실천이 “집합적이고 총체적인 권력효과”(93쪽)로 나타나는 양상을 이른바 ‘급진적 맥락주의’에 기초하여 해독한다. 요컨대 담론분석의 텍스트와 담론 읽기 차원을 넘어선 “변화하는 정치적인 기류, 그리고 대중의 유동하는 관심사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다면적인 해독”(94쪽)으로써 국면분석이 주요하다 할 것이다.

## 2) 국면분석의 실천적 분석 틀: 로렌스 그로스버그(Lawrence Grossberg)의 <혼란을 틈 타(Under the Cover of Chaos)>

급진적 맥락주의에 대한 강조가 추동하는 국면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서울에서 있었던 인터뷰(이기형·조영한, 2015)에서 그로스버그가 스스로가 힘주어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에 앞서 2004년 미국 일리노이 주 어바나-샴페인에서 이루어진 문화연구 학회의 기조연설로 발표된 원고(Grossberg, 2005/2005)에서부터 그는 이미 맥락, 국면을 강조해왔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건과 모순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에 복합적으로 간여하는 담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과 삶의 경험(lived realities)들, 축소할 수 없는 복수성(irreducible multiplicity)들, 그리고 복합적인 관계망”(이기형·조영한, 2015, 229-230쪽)이 국면이며, 이에 따라 국면분석은 “이러한 요인들의 접합과 여기서 빛어지는 효과들을 맥락적으로 접근하는 작업”(230쪽)이다. 특히 스투어트 홀과 동료들이 “개입적이고 다면적인 진단이 필요한 하나의 특정한 국면”(230쪽)을

설정된 것과 차별화하여, 장기적이며 오랫동안 “형성되고 축적되는 사회 내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배치(settlements)”(230쪽)로서 국면에 주목한다.

그림시를 필두로 발원한 문화연구에서의 국면분석은 “지식인으로서 어떤 층위에서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자 결정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긴밀하게 조응되는 지식생산을 추구하면서 특정한 전술적인 방식들을 개입적으로 도모”(231쪽)하는 행위다. 여기에서 국면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일종의 지적 구성물(construct)”(231쪽)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국면을 읽고 개입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투쟁과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며 대면하는 사안의 특수성과 관련성을 조밀하게 파악하는 일”(231쪽)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적 접근, 분석 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인터뷰 당시에는 유보적으로 진술한, 그러면서도 “국면을 만들어가는 관계망들의 구현과 절합(접합) 과정에 초점”(234쪽)을 맞춘 작업을 제안한 바 있다. 그의 기조연설 원고에서도 산발적으로 등장한 바, “유기적인 위기(organic crisis)”(Grossberg, 2005/2005, 137-141쪽 참조)에 의해 정의되는 국면, 그리고 주요 키워드로서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진지전(war of positions)”(149쪽, 155쪽 참조) 등이 국면분석의 주된 카테고리로 활용된다. 덧붙여 “문제적 공간(problem space)”(이기형·조영한, 2015, 231쪽)이 분석 틀로 유효하다. 이에 대한 최근의 결실로서 미국 사회의 국면을 진단한 저작 <Under the Cover of Chaos: Trump and the Battle for the American Right>(2018)을 내놓았다. 해당 저작에서 시도한 국면분석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후속 논문(2019)에서 정리했다.

우선 그는 국면분석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먼저 추상적 단위에서 정치적 선택의 전략적 개입을 살피는 것이다(Grossberg, 2019, p. 42).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개입은 대체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궤도를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분절적으로 사회를 온전히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주목한다. 때때로 짧거나(conjecture), 혹은 긴 수준(epoch)에서의 변화를 아우른다. 이는 홀과 동료들이 <위기 관리>를 통해 보여준 특정 ‘국면’에 주목한 것과 차별화된다.

이어지는 단계에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실천 영역에서의 논의들에 집중한다. 이를 다시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진지전’에서 복잡다단한 맥락을 정치적으로 읽는 것, 둘째, ‘문제적 공간’에서 구성되는 복합적인 문제들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 셋째, 그림시가 언급한 ‘유기적 위기를 전유하여 문제적 공간과 결합되는 영역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p. 43). 이는 선형적이고 이른바 시퀀스에 따른 흐름이 아니다. 스투어트 홀이 일전에 구상하고 언급한 “국면적으로 생각하기”(p. 43)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 3)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트럼프와 미국 우파의 투쟁에 대한 국면 분석

그로스버그는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의 질서 재편을 국면분석으로 진단했다(Grossberg, 2018). 그의 저작〈혼란을 틈타: 트럼프와 미국 우파의 투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트럼프를 탄생시킨 미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논의들을 맥락화하고, 공화당 트럼프 캠프와 민주당 힐러리 캠프 두 곳의 담론 전략과 그 의미들이 어떻게 승패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상황의 복잡성을 읽어내는 지표들을 풀어낸다. 둘째, 시대적 흐름으로서 보수주의의 역사를 통해 작금의 국면이 이어지게 된 이유를 탐문하고, 허무주의의 팽배 - 광신, 불안, 시간적 소외 등 - 라는 정경을 묘사해낸다. 셋째, 신보수주의 사회기획의 반동적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 경향을 제시한다. 각각 문화적 우위성, 문화 중재 형태의 복잡성,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 - 국가 없는 국가, 대중적이고 대체 파시스트적인 기업주의들 - 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반지성주의, 혹은 지성에 대한 비판주의, 의지에 대한 상실과 낙관주의 등을 논하면서, 트럼프의 등장을 단순히 한 개인의 돌출된 당선으로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국면적으로 읽기를 제안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방법론적으로 총론을 살펴보면, “진지전” 차원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각각 살폈다. 전후 보수의 ‘정치적 동향과 진보의 움직임과 경제, 문화 -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논의되는 영역을 아우르면서 - 차원의 논의를 복합적으로 아우른다. 진지전의 세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집권 속에서 불거진 인종 담론의 대두에 대해 반동적 보수주의의 동향으로서 차별적 담론 실천과 행위들, 그리고 페미니즘과 소위 ‘미투’ 운동 및 이민자 논란 등으로 촉발된 진보적 가치를 둘러싼 정체성 차원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대표적인 정치적 진지전의 양상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금융 위기 등을 통해 두드러진 모순적 상황들과 지역구를 넘어선 경제적 차별 구역으로서 러스트 벨트에 대한 획정 등이 트럼프와 미국 보수주의의 혼란 조장의 주요 쟁점이 된다. 끝으로 문화적 진지전으로서 ‘진실’ 투쟁과 담론 실천의 영토 변화 - 전통적 저널리즘 및 지식인에 대한 불신 조장 - 가 주요 맥락으로 등장한다.

이어서 “문제적 공간”은 ‘불안감’과 ‘과잉행동’, ‘격리’와 ‘추방’, 나치즘을 연상케 하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구현되는 정경이다. 여기서 ‘공간’이라 함은 담론 투쟁이 벌어지는 장이다. 주요 정경으로서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담론 실천과 정치적 움직임들(정치적 진지전의 영토), 엘리트와 ‘부자’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해체 주장들(경제적 진지전의 영토), 반지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적 권위에 대한 해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담론 확산(문화적 진지전 영토)이 불거진다.

끝으로 “유기적 위기”는 ‘조정과 관계 차원의 위기’, ‘권위(지식)의 위기’, ‘사회 통제 차원의 위기’로 나타난다.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조율의 방기를 넘어선 갈등 조장을 부추기며, 사회적 신

뢰와 구심점의 상실, 이를 넘어선 해체를 조장하는 혼란이 강화된다. 이에 영합하도록 이루어지는 유권자,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형태로서 구현되는 사회 통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관점을 아우르면서, 본 연구는 첫째, 윤석열의 당선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논의들을 맥락화하고, 국민의힘이 추구한 담론 전략과 그 의미들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졌는지를 진단한다(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진지진 파악하기). 둘째, 이를 시대적 흐름으로서 보수주의의 역사를 통해 작금의 국면이 이어지게 된 이유를 탐문하고, 소외와 차별의 담론,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분노와 패배의식 등의 정경을 그린다(문제적 공간으로서의 정경 읽기). 셋째, 반동적 신보수주의의 기획이 추구하는 문화적 혼란의 부추김을 살핀다(유기적 위기를 통한 재집권의 국면 전환 진단하기). 보다 구체적으로, 소위 '가짜 뉴스'를 통해 촉발된 진실에 대한 담론과 언론 불신, 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차원의 혼란 야기, 다시 '국가주의'로의 회복, 경제와 문화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맥락들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반지성주의, 혹은 지성에 대한 비판주의, 경쟁에 대한 의지 상실 및 패배의식 및 분노 표출의 대상화 등을 논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단순히 보수의 재집권으로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작금의 상황으로 맥락화된 '국면적으로 읽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가 국면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개념적 검토에 빛을 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영미의 사례를 한국에 등치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에서 유사한 시기에 당선된 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보여준 담론 실천과 그를 통한 국면 전환이 가져온 맥락들을 개별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 현상이자 위기로 진단하려는 시도이다. 용례와 방법론의 전유는, 미국적 시각에서의 한국 읽기 차원이 아닌 공통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로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 3. 혼툼당선: 윤석열과 보수 재집권 분투

#### 1) 혼툼: 혼란을 틈타 - 대선 국면에서의 혼란 맥락화와 선거 전략 검토

2019년 중반 무렵부터 등장해 현재까지도 빈번히 쓰이는 신조어로 '혼툼'이 있다. '혼란을 틈타'의 줄임말로, 혼란한 틈을 기회로 삼아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다(서울경제, 2020, 1, 12). 대구에서는 '혼툼일상전(展)'이 열리기도 했다(한겨레, 2019, 7, 24). 질서와 체계가 사라져 어지러워진 상태, 즉 혼란은 기회의 순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때때로 혼란은 '야기된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면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혼란'을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혼란에 대한 맥락은 선거 캠페인에서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 수용자의

화답 등을 경유하여, 궁극적으로 선거 승리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국면을 진단하는 지표다. 본 연구가 전범으로 삼은 〈혼란을 틈타〉(Grossberg, 2018)의 국면분석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 적용해보기로 하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의힘의 승리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을, 언론 신뢰를 둘러싼 논란, 부동산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젠더 논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 속 정치, 경제, 문화에서 벌인 진지전의 차원을, 발화 주체들의 담론으로 읽는다. 셋째, 그를 통해 반동적 신보수주의 기획이 추구하는 문화적 혼란의 부추김이 초래한 유기적 위기 맥락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혼란의 진지전이 야기한 반지성주의, 분노 표출 등의 정경이, 유기적 위기의 부상을 통해 재집권의 국면 전환을 이끌어낸 상황을 이해한다.

### (1) 정치 지형 변동이라는 혼란 속 언론의 불신과 뉴미디어로의 이행

첫째, 언론을 둘러싼 비난의 목소리에 대한 시각이다. 오래된 비유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전체 언론에서 다루어졌다는 평가가 문제인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및 친여 커뮤니티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진보 세력의 언론 불신이 대선 내내 주된 키워드로 오르내렸다. 언론의 불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변곡점에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유튜브는 소위 '정책관'(정치 핵심 관계자)으로 주목받았다. 시사 정치 유튜버들은 기자와 뉴스 비평을 넘어 정치적 의제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 뉴스 미디어가 아닌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비롯해 시사 정치 분야를 소비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기사가 일례다(한겨레, 2022, 1, 17). 소비를 넘어 생산 차원에서 '유튜버'의 활동도 득세한다. 그들은 전통적 뉴스 미디어를 대체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이념적 구분을 넘어 유튜버들의 미디어 비평 및 정치적 이슈의 생산, 나아가서는 언론 대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구독자를 위시한 정치 지지층의 높은 화답을 끌어냈다.

보수 유튜버의 역할 인식과 정체성, 그리고 광장에서의 집회 참여자들의 환대에 대한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이종명(2021b)의 연구나, 이념적 편향에 기초해 국가의 공식 기억을 부정하는 대항적 담론 실천의 면면을 살핀 연구(이종명, 2022a)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에 대한 진보적 정치 지지 세력의 화답도 닦은꼴이다(이종명, 2022b). 전통적 저널리즘 전문가로 인정받아 온 기자 집단의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부정, 비판과는 괴리된 현상이다(이종명, 2022c).

두 가지 시대적 맥락이 주요한 지점이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TV조선, 2016, 7, 26)에 뒤이어 9월 20일 <한겨레>의 ‘K스포츠 재단’ 개입 의혹 보도(한겨레, 2016, 9, 20), 그리고 마침내 10월 24일, 여론의 국면전환을 이끌어낸 <JTBC>의 태블릿 PC 보도(JTBC, 2016, 10, 24)가 이어졌다. 정치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문제의식 공유는 모두 소위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언론은 촛불 집회로 국민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통해 공정한 보수 일변도의 정치 지형을 단숨에 뒤엎은 방이쇠를 당겼다. 한편, 그 반대급부로서 태극기 집회라는 광장 저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셜 미디어, 특히 유튜브에서의 소위 저널리즘적 실천이 수반됐다.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이자 동시에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 대한 대항적 행위로써 유튜브를 통한 뉴스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요컨대 한국 정치의 헤게모니를 오랫동안 장악하던 보수적 정치 세력의 붕괴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의 몰락을 부추기거나 방관한 언론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언론의 태도 변화에 극렬히 반박했다. (태블릿 PC 보도를 위시한) 가짜 뉴스로 사기 탄핵을 이끈 언론을 “탄핵 오적”으로 규정하고, “민중노총”이 언론을 장악했다. 와 같은 주장을 내놓으며 비난했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표출은 유튜브를 통해 이어진다. 뉴스 생산과 유통을 자칭하며, 광장 정치라는 집회 현장에서의 목소리 내기와 옮겨내기에 참여한다.

둘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 국면이다. 2019년 7월 26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은 사퇴 후 8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다. 이후 2019년 10월 14일, 35일간의 장관직 수행을 마치고 사의를 표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여론 대전이 벌어졌다. 2022년 1월 27일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4월 5일), 고려대(4월 7일) 입학 취소 결정, 2023년 2월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2년형 선고 등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태’, ‘대전’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검색에 따라 수치가 상이할 수 있으나(연합뉴스, 2019, 9, 10), 조국 관련 기사가 최대 118만 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가히 폭발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2019년 9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수색 중계 과정에서 한 배달원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의 성매매 기사 일러스트에서의 ‘조국부녀’ 등장 등 언론의 병폐를 주장하는 일련의 특징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조국 사태를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규정, 범조 관련 기관이 즐비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일어났다.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서초동과 여의도 인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언론의 병폐와 ‘검언유착’이라는 주장 아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공히 주장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팽배해졌다. 나아가 서

초동 집회 초기 및 여의도 집회의 〈시사타파TV〉, 서초동 집회 후반부의 〈NewBC〉 등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새로운 담론들을 생산해내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목소리 내기와 옮겨내기에 참전했다. 동양대 PC 증거 조작, 〈SBS〉의 검찰 발표 전 보도 논란 등 가짜 뉴스로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정보를 흘리는 검찰에 대한 의혹들을 강하게 개진했다.

요컨대 보수 정치 세력의 괴멸적 상황과 언론에 대한 불신의 대두, 그리고 그 대체가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진 국면이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면, 진보 정치 세력의 동력 상실과 언론에 대한 불신 팽배, 그리고 그 대체의 움직임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다.

이념 지형을 넘어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유튜브를 통한 대체의 목소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이 정치 담론을 주도했다.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열린공감TV〉는 2021년 6월 원색적인 루머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며 주목받았다.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방으로 여론의 전면에 나섰다. 정치 담론의 주체들로서 시사 정치 유튜버들이 활약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삼프로〉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에 대한 호응과 평가절하가 이어졌다. 이에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통적 저널리즘의 영향력 붕괴와 유튜브의 약진을 넘어서는 대체까지도 접쳐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유튜버들의 약진은 제20대 대선을 이른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로 이끌었다.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양측 후보에 대한 논란들로 말미암아 선거를 혼탁하게 추동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 각종 전과 경력 등은 제19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있어 온 문제제기였다. 그와 함께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활동해온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의 줄임말) 등 팬클럽과 문재인 지지자층과의 대립 등이 오랫동안 커뮤니티 등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위의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 층에서의 지속적인 공세 포인트가 되었다. 이어서 서울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논란을 기점으로 의혹의 축이 이동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의 공공영역 환수 과정에서 특정한 소유 회사로 이익금이 돌아간 이슈가 대선의 주요 화두로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끝에 이어 국민의힘과의 경쟁에서도 악재로 작용했다.

배우자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됐다. 이른바 ‘줄리’ 논란은 이 후보의 욕설 논란과 함께 ‘역대급 비호감’을 추동한 주요 쟁점이 됐다. 아울러 논문 관련 논란과 허위 이력 기재, 채용,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 등 윤 후보의 장모의 법적 시비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져만 갔다. 특히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 유튜버 등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확신일로를 걸었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맥락과 맞물려 가짜 뉴스에 대한 맹신으로의 이행이 두드러지는 맥락들이 이어지는 논의에서 상술될 것이다. 동시에 대선 출마 선언 후 윤 후보의 발언도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허용’, 전두환 옹호, ‘개 사과’ 논란, 장애인과 정상인, ‘여가부 폐지’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각종 언동이 이어졌다. 특히 후술할 보수 세력의 장기간에 걸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용례들이 두드러진다.

결론적으로 정치 지형의 격변과 맞물린 미디어 헤게모니의 변화는, 지지 세력을 둘러싼 담론 투쟁의 전장, 진지전을 전통적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 및 광장 정치로 옮겼다. 이러한 혼란은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정치 세력과 담론 생산자들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적 공간으로서의 정경으로, 나아가서는 소위 ‘반지성주의’로 표상되는 유기적 위기의 정치 담론 전략과 접합된다. 다음 장의 “정체성의 정치”에서 국면 읽기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부동산 정책 불안정과 소위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 혼란

제20대 대선의 사실상 주요 키워드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061만 원에서 2021년 12월 4,309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이데일리, 2021, 12, 15). 집값 폭등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문 정부에 대한 비난은, 2021년 4월 보궐 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윤 후보와 이 후보는 문 정부와는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공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250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 등을 내놓고, 세금 규제에 대한 완화를 저마다 쏟아냈다.

풀어 설명하면, 문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세금 인상과 강도 높은 규제가, 오히려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에 대한 격차 심화와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린 집값 폭등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내 집 마련 꿈에 대한 포기’의 울분이 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재산세와의 일원화를 공약하는 등,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불만 수용의 결과를 선거 캠페인에 반영했다. 높은 양도세에 대해서도 매물 부족을 초래한 주범으로 삼아, 디주택자 2년 면제 등의 과격적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마침내 취득세, 누진과세 등에 있어서의 정책 완화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윤 후보 측의 정책이 어디까지 현실화되는가의 영역에 다다른다(뉴스핌, 2022, 4, 1).

특히 불과 24만여 표 차로 진 이 후보의 결정적 패인은 서울에서의 31만 표 차로 보는 해석이 있다. 특히 윤 후보자의 승리를 이끈 강남구(67.01%), 서초구(65.13%), 송파구

(56.76%), 용산구(56.44%), 양천구(50%)는 공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안정과 투기관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오롯이 수용하지 못한 이 후보 캠프의 전략 부재가 결정적이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요구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정책적 혼선만 낳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 2022, 4, 6).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내로남불’ 이미지 덧씌우기가 국민의힘의 캠페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심 이반을 고스란히 겪었다. 임대차법 입안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9% 상승에 대한 비난(중앙일보, 2021, 3, 31),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소위 ‘영끌 빚투’를 통한 부동산 투기의 ‘내로남불’(연합뉴스, 2021, 6, 26) 공세는 고스란히 대선 패배의 요건 중 하나로 자리잡는다(매일경제, 2022, 3, 10).

부동산과 함께 민주당과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조국 사태’ 속 ‘내로남불’과 ‘공정’에 대한 요구로 결집된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패배 후 민주당이 수행한 정당 이미지 조사에 나타난 상징적 키워드로 ‘내로남불’, ‘거짓말’, ‘오만’ 등이 꼽혔으며, “도덕성이 가변적”이며 “깨끗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중앙일보, 2022, 3, 11). 이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선 패배로 귀결되자, 다시 한 번 조국 사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성을 토로했다(매일경제, 2022, 3, 17). 공정의 가치 상실과 국민 실망 및 분열의 내로남불로서 조국 사태를 규정한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의 발언은 논란의 뿔감을 더했다(국민일보, 2022, 3, 18).

이재명 후보 역시 2021년 1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등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소위 내로남불인데, 잘못이 있는 것은 책임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22, 1, 29). 이른바 ‘스펙 품앗이 및 조작’이라 일컬어지는 일에 대해,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2019, 8, 23)라고 밝히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2019, 10, 30)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밝혔다. 이 지점을 파고든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리의 수락 연설에서 “조국의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으로 자신을 규정했다(전자신문, 2021, 11, 5). 공정에 대한 기조는 선거 캠페인 내내 이어져, 대통령 당선을 견인하기까지 주요한 정치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 (3) 젠더 갈등의 혼란 속 무시와 분노의 서사 표출

끝으로 한국 진보 세력의 오래된 '남성'에 대한 무시와 그로 인한 분노가 낳은 혼란을 선거 패배의 주요 해석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진보 정치의 오래된 논의들이, 역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빼앗긴 20대 남성(이하 이대남)의 반발과 응집을 이끌어낸 것이다. 처음부터 이대남의 지지를 보수 세력이 흡수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던 2016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7%에 불과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2년 1월에는 44%에 달했다(중앙일보, 2022, 3, 15). 지지율 역전의 시작은 2019년이였다. '미투' 사건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에서의 남성에 불리한 판결이라는 해석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반감과 역차별 담론이 팽배해졌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시대정신에 대한 국가미래연구원의 자료(2019, 4, 18)에 따르면 남녀갈등 언급량이 2015년에서 2016년에 비해(385만 건) 2017년에서 2018년(2409만 건) 6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 갈등 중 남녀갈등이 전체의 70%에 달하기도 했다. 표심으로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총선이었다. 40%에 달하는 이들이 당시 미래통합당을 찍었다. 민주당과 불과 8%의 차이밖에 달하지 않았다. 이준석 당시 노원구 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이대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참여, 20대 남성으로부터 72.5%의 득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본격적으로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첫 캐치프레이즈를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대남의 소구 지점들을 파고들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남성 응답자 25%의 지지를 얻어 나경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등(머니투데이, 2021, 5, 16) 상승세를 이어가, 청년/여성 할당 등의 이슈들을 던지면서 2021년 6월 11일 마침내 당선되기에 이른다.

이후 이른바 '세대포위론'을 내세워 향후 대선의 방향을 노정했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지지율 폭등을 이끈 것에 대해 이준석의 비토와 이대남의 차별을 동일시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즉각적인 지지율 상승을 추동하는 '뜯채'로서 이대남을 활용한다는 선거 전략이 내부적으로 공론화되는 등(중앙일보, 2022, 3, 15) 젠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끊임없이 회자된다. 다시 말해 젠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배제의 정치로서 백래시(반발)를 추동한 것이다(한겨레, 2022, 3, 8). 이는 후보자의 선거 전략에도 즉각 반영된다. 2022년 1월 6일 윤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그리고 이튿날 올린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는 남성 중심 보수 커뮤니티의 열광적 화답으로 이어졌다. '성인지 예산', '비동의 간음제' 등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국민의힘 청년 조직 공식 채널에서 유포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젠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대남들의 이



탈을 직간접적으로 막으려는 시도에서, 유튜브 채널 〈씨리얼〉 출연 거절과 〈닷페이스〉 출연 번복 후 인터뷰 등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났다. 페미니즘 정책을 통해 남자들을 역차별해 온 민주당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는 등 우회적으로 손을 내밀기도 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의사를 모호하게 밝히거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논란 등에 대해 사과와 입장 표명의 유보하는 등, 젠더 갈등의 목소리들에 휘말린 어정쩡한 입장을 이끌어왔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있어 젠더 공약이 투표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0.9%에 달하는 등, 주요 쟁점이 되었다(조선일보, 2022, 5, 6a). 4월 15일에서 20일까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66.6%가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22, 5, 6b). 정치인 선호도 조사에서도 앞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대남 호감이 투표로도 이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남성의 48.5%는 이 대표에게 호감을 느껴서라 응답했다. 반면 이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여성의 37.6%는 이준석 대표에게 반감을 느껴서라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성 권익 대변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37.6%였으며, 20대 남성 55.7%, 30대 남성 47.1%가 높은 비율로 호응했다.

결론적으로 무고죄, 여성가족부를 통한 역차별에 대한 백래시 등을 젠더 정치화한 대선 전략은, 이대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와 진보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극대화된다. 부당하게 상처 받고 버려진 이대남들은 희생자로서 공당의 대표에 자신을 투영하며, 분노 표출을 넘어서 복수에 대한 반동적 욕망을 드러냈다. 정치 지형의 변화 속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불신 조장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진실' 투쟁의 확산,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공정 논란, 젠더 갈등 속 박탈감이라는 분노의 서사들이 접합된 담론 실천들이 선거 국면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들은 각각 진지전의 맥락이자 문제적 정경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지향한 유기적 위기들이 이끌어낸 결과들을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본다.

## 2) '정체성'을 경유한 정치, 경제, 문화 담론에서의 진지전과 전장(戰場, 문제적 공간)

둘째, 앞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혼란스러운 국면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해석과 맥락화를 밑거름으로 삼아, 분석적 실천 차원의 논의로 정치, 경제, 문화 담론의 발화를 확인한다. 본 장에서는 부동산 이슈와 내로남불, 젠더 이슈 등의 키워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담론 실천이 벌이는 공정에 대한(비/자의적) 요구, 갈등과 분노의 발화와(소셜) 미디어에서의 투영, 그를 통해 구축되는 정경들을 살피는데 주력한다.

### (1)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 이슈화: ‘공정’에의 포섭

젠더, 부동산,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분투를 진지전으로 전개한 국민의힘이 주력한 정치 캠페인이었다. 우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발화를 어떤 키워드와 접합하였으며 이를 주요 쟁점으로 담론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공약집의 제목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부터 해당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다. 공정과 상식을 반복적으로 발화한 유세 전략이 고스란히 공약집에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 부동산, 내로남불을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은, 세 번째 공약으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표방했다. 각론으로 ‘공정사회’, ‘부동산정상화’, 그리고 미디어, 노동, 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공정사회에서는 첫 장부터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으로 시작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채용 비리 근절” 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 특정인에 대한 특례제도가 있어 논란”이며, “특혜 채용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장의 부모찬스는 ‘조국 사태’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며, ‘공정한 채용 기회’는 문제인 정부 집권 초기 이루어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노조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다. 정부 실책에 대한 강조는 공약집의 ‘현재’로, 이에 대한 극복은 ‘약속’으로 명시된다.

이어서 “부동산 정상화” 장에서는 현재 “주택가격이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이라 주장한다. 아울러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불만이 큼”이라 천명한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 확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아울러 임대시장의 ‘정상화’, ‘공시가격 환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젠더 갈등은 선거 전략에 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채용 과정에서의 이대남들의 소외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으로서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함을 밝히는 정도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을 언급하면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천착하는 모양새다. 이어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 구축’의 실마

리는 ‘남녀 평등한 일자리 확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대남들의 주장과는 상충된 맥락을 드러낸다. 이는 “공정한 노동환경”, “공정한 사회”라는 키워드에 가려져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공약집 역시 ‘공정’에 대한 키워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 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제시된 5대 비전, 20대 핵심 추진과제 중 2번이 ‘공정성장’이며, 각론으로 ‘공정질서’가 제시된다. 5대 비전의 해설에서는 “용이 나던 개천은 말라버렸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넘어졌”다며, “불공정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이 오랫동안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한다. 대상별 공약에서 청년에 대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도록 돕겠다고 밝히고, “공정 채용 법제화 및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각론 “공정질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슈화하고자 하는 공정의 개념과는 상이한 담론 실천을 보인다. 공정 경쟁 질서라는 이름 아래 기업 간 경쟁에서의 공정, 갑과 을의 동반 성장, 청렴, 상생, 자본시장 불공정 등 거시적인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다. 공공기관의 공정성 등을 지나, 19번에 가서야 ‘대입 공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그럼에도 정치 이슈가 공히 ‘공정’에 매몰되어 있음을, 양당의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후보의 발화나 여론에서의 쟁점으로 부각 된 젠더 차원의 논의는, 공약 안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진보 정치의 ‘정체성에 따른 재분배’ 등에 대한 가치 추구하고 그에 대한 소위 ‘이대남’들의 반발은, 정치 현장에서의 수사학적 기표로서 과잉 표집되어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이성적 소란의 정치로 표출될 뿐이다. 요컨대 이른바 조국사태로 촉발된 - 그 추동 역시 보수 정치 세력의 담론 실천의 결과로서 - 공정 논란은 전통적 진보 정치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어 온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감정(정경)을 자극하여, 선거의 핵심 의제이자 주요 키워드로 접합됐다.

## (2) 경제 담론 실천 속 유구한 정부 비판과 코로나19 속 경제 대응의 비난

기실 문제인 정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경제 정책 비판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된 전략이다. 그 출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동한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보수 오피니언 리더와 공당의 대표, 국회의원 등에게서 공히 등장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언론의 갑론을박 속에서 문제인 정부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에 베네수엘라 사례가 접합되기 시작했다. 보수적 성향을 띤 언론사와, 보수를 기치로 삼은 공당의 의원에게서 문제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여론화되기에는 담론 실천 과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뒤이어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의 입을 빌려 본격

적인 문제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베네수엘라가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이어 모든 언론사에서 해당 발언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나아가 제목에 ‘베네수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곧 포퓰리즘이며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동시에 보수 소셜 미디어 채널(펜앤드마이크TV, 2018, 1, 5)에서 역시 칼럼과 시론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좌파독재’가 초래한 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강한 어조로 동조했다.

보수 언론과 공당의 의원, 나아가 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키워드로 베네수엘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콘텐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내내 흔들여왔던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의 발화와 참여자들 간의 담화 속에서 반복 재생산된다. 이는 2022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보수 세력의 여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된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 경제 위기에 대한 세계 국가들 간의 비교 우위 및 경제적 우위를 통한 선진국 진입 등의 평가가 저편에서 제기됨에 따라, 보수 세력의 공허한 담론 실천으로 남겨졌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외려 이에 대한 풍자적이면서 전복적인 수사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당선 후 진보 세력에서의 ‘대한민국의 필리핀화’, ‘브라질화’ 등으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경제 담론의 진지전에서 마침내 우위를 점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이르러서였다. 경제는 보수 세력의 오랜 화두였다. ‘성장주의’(채장수, 2009)나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과잉 복지’(김주호, 2019) 등, 보수 정당은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자신들을 규정하며 진보 세력 집권의 무능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통한 시장 경제 만능주의를 설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일변도 속에서 문 정부에 대한 경제 비판의 주된 키워드로서 변함없이 담론 정치화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그리고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시점에서, 보수 여론의 선봉장에 선 조선일보는 경제 화두를 맹렬히 꺼내든다. 특히 2020년 3월 중순부터 4월 15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부터 경제에 대한 질타를 연일 쏟아낸다. 2020년 3월 13일자 사설에서는 “선거에 이성을 잃었나”라는 제목 아래 “이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 친노동 일변도, 반기업 정책으로 고용 참사와 경제 침체를 자초했다. 그 실책을 감추려 3년 내내 세금만 뿌려대는 통에 재정이 부실화됐다. 그렇게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2020, 3, 13)이라는 주장을, 같은 날 다른 사설에서는 “국가 경제 위기 더 이상 경고 아닌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이 “죽기 직전”이라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10%에도 못 미친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

고 경제 부처는 눈치만 보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권력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고 관료들은 나중에 다칠 책임론 공방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먼저다”(2020, 3, 13)라는 주장을 펼쳤다. 연이어 다음날에도 같은 맥락에서 “경제 리더십이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주장 역시 낯설지 않다. 2017년 11월 20일자 “[사설] 靑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사실이나, 2018년 8월 8일자 “[사설]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사실 등에서 활용된 해묵은 메시지가 “재야 단체”, “현실을 모르는” 등과 같은 표현으로 보수 여론의 담론정치에 군불을 지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진보 집권 세력의 경제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담론을 획책하는데 공을 들였다. 3월 18일자 사설 역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특단 대책”, 안심이 안 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서 새로운 용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시도도 관찰된다. 2020년 3월 20일자 사설 제목으로 “[사설] 코로나 경제 위기 시작일 뿐, 기저 질환 치료 없이 장기전 생존 못 해”에서 처음 언급되어, 23일자 사설에서도 코로나19 속 질병의 은유(이종명·이승아, 2017; Sontag, 1978/2002)를 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관련 논의는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 국면에서 비판의 용례로 접합된다. 코로나19가 확산일로를 걷던 2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던 경제 관련 논의가, 3월에 들어 6건, 4월 15일 총선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설 6건 전부에서 경제가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대표 경쟁”(2020, 4, 1), “보수 야당의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나왔”으며, “여당 대표는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 국민 지원 찬성”이라고 맞받았”으며 심지어 “상대방 베풀에 밀리지 않으려고 “그 두 배”를 외치는 도박판 모습 그대로”(2020, 4, 8)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전재정) 방어막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포퓰리즘과 세금 살포 증폭증”이라는 진단(2020, 4, 8)까지 같은 날 다른 사설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여야가 도박 베풀하듯 벌이는 포퓰리즘 경쟁”(2020, 4, 9)이라는 비난은, 보수 여론의 오랜 담론이었던 포퓰리즘의 재연일 따름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일이었던 4월 15일에도 경제 관련 비난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정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지출을 아껴 재정 실탄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릴 때가 아니다”(2020, 4, 15)라 주장했다. 특히 앞선 사설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이 빛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2020, 4, 15)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미래 세대의 돈을 빼앗아 지금 당장 나눠 먹는다는 뜻이다.”(2020, 3, 31) 4월 8일자 “눈사태가 시작됐다”는 목시론적 경제 위기 군

불 때기에 대한 담론정치의 연장으로, 4월 9일자 사실에는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MZ세대, 즉 2030세대에 대한 갈등 조장이 사실상 시작되는 국면을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흥청망청 빚을 지면 자녀 등골이 휨다”(2020, 4, 9), “경제 위기 대응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우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2020, 5, 4), “5년 내내 마음껏 세금을 ping ping 쓰고 적자투성이의 빚더미 재정을 물려주겠다는 것”(2020, 9, 3) 등 미래 세대가 감내하게 될 세금 ‘폭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진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국면에서 경제 담론의 착종이 가속화된다. “민주당은 무조건 뿌릴 돈부터 늘리라고 한다. 염불이 아니라 잣밥(표)밖에 보이지 않는 것”(2020, 3, 13),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대규모 세금 살포를 ‘특단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2020, 3, 18)으로 선거 국면에서의 경제 논리 개입을 사전 경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해 어떤 성적을 매기느냐에 따라 남은 2년의 국가 진로가 결정”(2020, 3, 30)될 것이라는 주문을 붙여넣는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비난은 앞선 포퓰리즘에 대한 보수의 오래된 담론정치(김주호, 2019)의 재연으로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로 불거진다. “선거 의식 줄속 ‘100만원’ 발표”(2020, 3, 31),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누가 더 화끈하게 돈을 뿌리느냐를 놓고 경쟁”(2020, 4, 1), “선거가 나라를 기울게 만들 수 있다”(2020, 4, 8),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전략의 핵심은 ‘전 국민 지원금’일 것”(2020, 9, 12), “재난지원에 ‘정치 선심’ 끼워 넣지 말라”(2020, 9, 23), “여야 가릴 것 없는 포퓰리즘 경쟁에 선거가 올 때마다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날 판”(2020, 12, 1), “3차 시작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운운, 선거가 다가온 것”(2021, 1, 6),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뭘가”(2021, 1, 13) 등 제목과 내용을 막론하고 선거 국면에서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실 틈이 없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와 정부와의 갈등에도 주목한다. “대선 급하다 해도 총리가 정부 부처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니”(2021, 1, 22),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의 발언을 다시금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태도를 “포퓰리즘 맞설 뜻 없이 말만 하나”(2021, 1, 23), “‘전 국민 지급 거부한 홍남기, 면피성 쇼 그만하라”(2021, 2, 4), “어설픈 정치 흉내 홍남기 부총리, 제 직분이 나 지키길”(2021, 4, 30) 등의 사실로 충들을 부각시킨다. 앞서 ‘운동권’에 대한 표현은 국무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미숙함, 무능을 강조하는 표현에서 홍남기 부총리 역시 포함된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대승과, 2021년 4월 7일 재보선 참패라는 1년을 사이에 둔 두

결과에서, 조선일보는 상이한 담론 실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압승이 점쳐지던 4월 13일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의회와 실책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전념한다. 이후 기록적 압승 후 조선일보는 “전례 없는 이 힘을 국민 위한 정책 전환에 쓰길”이라는 사실로 체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는 코로나19 덕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국민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마침내 이루어진 2021년 보궐 선거에서의 오세훈 서울 시장과 박형준 부산 시장의 압승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2021, 4, 8)로 해석해낸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참고 참던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는 표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는다. 4월 9일자 사설에서도 “불공정과 불의”, “위선과 내로남불”, “민심의 준엄한 경고”, “문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라는 동어반복이 이어진다.

정권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후, 조선일보는 다시 “국정의 선거화”,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상 선거 관련 사실의 전체가 지원금 관련 논란에 대한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을 “1조4000억원을 ‘뿌리는’ 절차에 착수”(2021, 2, 2)라 비난하며, “내년 대선 때까지 경기도에서 현금 살포는 계속될 것”이라 진단한다. 정부의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를 “노골적 선거 매수 나라 망친다”(2021, 2, 20)로 비판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2021년 8월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하위 88% 지급과 달리 경기도민들에게 100%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위를 “최대 표밭 현금 살포”(2021, 8, 14)로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기본 용돈”이라 비하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오래된 보수 세력의 담론정치를 재생산하기도 한다(2021, 7, 26).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오래전에 없었던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2021, 3, 20)이라 평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음에도,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 세금 800억원”이 드는 상황에서 “두 시장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였을 돈”이라며 “헛돈 800억원을 쓰게 된 것도 어이없는데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시민들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뿌리겠다고 한다”며 “남미식 매표 행위”, “한번 재동 장치가 풀리니 나라가 막 간다”는 노골적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구청장 역시 민주당 일색인 서울시에서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 각 구청들이 별도로 돈봉투를 흔들 가능성”(2021, 3, 24)이라는 목소리도 높인다. 이러한 행위가 곧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라 빚”(2021, 4, 7)로 돌아왔다고도 주장한다.

선거 패배 후 정부 정책이 모두 득표용으로 변질되었다고 평한다(2021, 4, 28). “지난 보

결선거 민심 이반에 놀란 정권은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뒤통 하겠다’는 태세라며, “천문학적 세금 살포와 정책 마구 던지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 주장한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도 “현금 살포, 막가는 경쟁”(2021, 5, 7)이라 비난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이제 우리 선거에서 현금 살포는 빠질 수 없는 무기로 굳어졌다.”(2021, 5, 7) “현금 살포의 위력을 경험한 여당”, “문 정부는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은 세금까지 끌어모아 선거에 퍼부를 궁리만”(2021, 6, 1),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박용진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여 “다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 “문재인 정부 내내 빚내서 퍼주는 데 골몰하더니 차기 주자들은 한술 더 뜬다”(2021, 8, 3)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 수준으로 늘리기 정책 변화에 대해 “10조원대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정을 마치 어린이가 소꿉장난 하듯”한다며,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대통령”, “서둘러 ‘위로금’을 뿌리는 의도는 뻔하다. 내내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다. 못 받는 사람 10%는 여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계산했을 것”, “앞에선 위로금 10조원을 뿌리고, 뒤에선 그 12배 빚을 떠안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삼모사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것”(2021, 9, 11)이라 단정짓는다.

특히 현 정부와 청년세대의 간극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인다. 앞서 2030세대에 대한 갈등 조장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기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간다. “사상 최악으로 늘린 국가 부채 수백조 원은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2021, 5, 7), “초등생 용돈 수당까지, 피해자 청년 세대가 망국 풍조 응징해야”(2021, 5, 8), “그 피해지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응징해야만 이 망국적 풍조를 끝낼 수 있다”, “5년 내내 평평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2021, 5, 29)가 대표적이다.

요컨대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선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변함없이 정부에 대한 비난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선거 전후로 이루어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논의를 맹렬히 비난하며, ‘포퓰리즘’이라는 오래된 보수 담론정치의 재생산을 이어간다. 그 과정에서 경제 차원의 논의가 착종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선거 맥락에서 지지층의 분열과 비판과 비난의 담론 뉘앙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 살포’와 같은 표현을 접합해낸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곧 매표 행위에 대한 동조이며, 빚더미에 앉는 나라에 살게 되는 꼴이라는 담론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보수 정치 세력이 수행한 경제적 담론 실천으로서 유구한 ‘포퓰리즘’적 문제제기가, 부동산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의 기본소득 및 지원금 등의 국면과 접합되어 부각된 것이다.

### (3) 미디어 지형 변화와 진실 투쟁의 쟁점화

기자와 언론에 대한 불신 팽배의 국면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맞물린 보도 참사, 2017년 탄핵



과 정치 헤게모니의 축 이동, 이를 변곡점으로 하는 시사 정치 유튜브의 특세 등의 국면이 제기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불신이 팽배해진 국가적 사건으로서의 ‘세월호’와, 언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서의 ‘박근혜 탄핵’이 골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은 하나의 ‘사건’일 뿐, 실질적인 저널리즘의 위기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문재인, 조국 넣으면 기사 잘 팔린다”(이종명, 2022c)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정파성의 극단화와 분열의 담화가 드리운 작금의 상황에서 기자의 전문성 하락은 부차적 논의일 따름이다.

그 맥락에서 유튜브의 소위 저널리즘적 실천이라는 주장이 겹쳐진다. 정치에서의 집단 극화가 일상화된 시기, 유튜브를 통한 시사 정치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활약할 수밖에 없는 무대가 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위 초유의 위기를 겪은 보수 여론은, 자신들의 헤게모니 상실을 뉴미디어 유튜브에서의 진지전으로 맞대응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진보 세력의 헤게모니 투쟁에서 유튜브의 정치적 목소리 내기가 커진 국면도 중첩된다. 특히 저널리즘의 위기를 직업 능력 하락이 아닌 미디어 시스템이 처한 거시적 환경으로 연결시킨 맥체스니(McChesney, 2003)의 논의를 적용해 볼 때, 현재의 저널리즘 위기, 혹은 붕괴는 단순히 기자 집단의 전문성 하락만이 추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적 국면 속에서 정치와 미디어의 지형 변화가 추동한 거시적 위기인 셈이다.

요컨대 기자에 대한 태도 변화는 기자 직군에 대한, 전문직주의의 상실과 엘리트시즘에 대한 부정의 인식과 함께, 정파적 맥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들의 전통적 뉴스 미디어를 통한 ‘속풀이’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찾게 되는 “해장국 저널리즘”(미디어오늘, 2019, 11, 30)에 다름 아니다. 유튜브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영 논리에 따른 카타르시스 표출에 대한 요구인 셈이다. 언론 수용자, 민중사회의 시민으로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팬덤 현상으로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양상으로도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맥락,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보수 세력의 유튜브 활용과 대체, 맹신의 국면과,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진보 세력의 유튜브 화답과 열광의 국면은 같고도 다른 역사적 변곡점이다. 두 시기는 3년이라는 시차를 둔 채 이념의 양단에서 미디어에 대한 공통된 태도 변화를 이끈 지점이다. 이념적 동조, 팬덤으로서의 뉴스 소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영합하는 저널리즘 미디어에 대한 확답 등이 그 특징이다. 해당 국면에서 정치적 지지 세력의 위치와 그 등락이 유튜브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된다.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국 사태는 공히 정치적 헤게모니의 전환이 이루어진 일대 사건이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집권 세력이었던 보수 정당의 (일시적) 붕괴가 2016년 일어나면서,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로부터의 동조와 연대가 그 시기 끊어졌다. 이

에 대한 반발이자 대안으로서 유튜브를 찾은 것이다. 그 맥락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는 뉴미디어의 대두와 확산, 그리고 일상화와 맞닿아 있다. 정치적 변곡점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가 맞물린 주요 국면이 이른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례를 촉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나마) 집권 세력으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해가던 진보 세력의 담론 우위 속 붕괴가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일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주류 저널리즘 미디어로부터의 공세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진보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일별되는 수용자들의 대응 역시 유튜브였다. 이는 기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과 촛불 집회 속 등장한 ‘길거리 저널리즘’의 유구한 전통 아래 놓여있다(이종명, 2022, 2, 28).

학계의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성긴 해석과, 업계의 ‘유튜브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따른 반발은 모두 이 수용자들의 반응과 역사적 국면에 기인한다.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학자들의 명명과 낚스 등 미디어 조사기관들의 해석 틀은 수용자들의 열광적 반응으로 말미암은 까닭이 크다. 정치적 세력 붕괴와 수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수용자들의 행동주의적 반응이 거세게 나오는 지점은 자연스럽게 유튜브 속 ‘저널리즘적 실천’이라는 결과론적 해석을 이끈다. 한편 업계의 ‘정파성’에 대한 반발은, 정치적 세력 균형의 시계추가 오가는 맥락 안에서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와 유튜브를 위시한 뉴미디어의 저널리즘 행위자로서의 대두가 벌어지는 진지전으로서 문제적 공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즉, 애초부터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와 유튜브의 저널리즘적 실천의 대립은 정파적인 문제였다. 그로 인해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맥락 안에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익숙한 이론인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허위 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으로 설명되어 온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자기 진형의 정보에 대한 맹신과 같은 의미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로, 이른바 ‘응징 언론’을 표방한 〈서울의소리〉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해당 유튜브 버는 2020년 대선을 ‘녹취록 정국’으로 이끌었다.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나는 7시간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서다. 내용 중 일부가 2022년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되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일부 인용에 따른 결과다. 이후 전체 내용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는 〈MBC〉의 방송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다. ‘김건희 홍보에 치중했다며, “이걸 방송이라고”, “이러니 mbc가 망하지”,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 방송 부탁”이라는 글이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쏟아졌다(한국경제, 2022, 1, 16). 요컨대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는 그 특성에서와 같이 인맥과 사적 정보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통적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정제되면서 이념적 공명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써 유튜브에 대한 화답이 더 강렬하

게 표출된 것이다. <서울의소리>를 필두로 이념적 동질성을 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제히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보도에 집중했다. 구독자를 비롯해 이에 동조하는 지지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의 균분을 뺐다.

문제는 유튜브를 저널리즘으로 여기는 수용자에게는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로서의 저널리즘 관행에 대한 부정과, 유튜브를 향한 맹신이 두드러진다는 데 있다. 유튜브에 대한 화답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전통적 뉴스 미디어의 진실 방기, 게으른 취재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유튜브의 저널리즘적 실천을 치켜세우는 언동만 불거진다.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 양상이 이어진다.

### 3) 반동적 신보수주의의 기획이 추구하는 문화적 혼란: 유기적 위기로의 접합

셋째, 궁극적으로 보수 재집권 분투의 진지전과 승리의 결과로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동적 신보수주의가 추동한 문화적 혼란’으로 읽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진지전과 문체적 공간을 경유한다. 즉 정치 캠페인과 공약에서 나타나는 ‘공정’ 맥락과, 경제적 실책의 담론화 및 맥락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진실에 대한 요구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화답과 조용, 그것이 빚어내는 보수 정치 세력의 담론과 그 접합이라 할 것이다.

#### (1) “정서적 과잉”이라는 유기적 위기 구성: 피해의식으로서의 울분과 굴욕의 문화적 노골화

분개(resentment)는 “가장 기대하지 않은 대에 어떤 자의식적인 형식의 행위로 나타나는 격양된 감정”(권정기, 2020, 193쪽)이다. 즉 존재론적 위기의식과 자존감에 대한 공격의 방어기제,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가치에 대한 무시를 저항하는 거부적 행위다. 정치 행위의 주요 동기로서 열정(passion)은, 젠더 갈등의 표출과 그 안에서 역설적으로 보수주의가 구사하는 -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 ‘정체성의 정치’로서 분개와 분노의 정경으로 드러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속에서도 여성은 국가의 새로운 ‘시민’으로 포함됨과 동시에 남성 중심의 권력 장이라는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배제’되는 존재(황정미, 2017, 20쪽)라는 주장 속에서, 성 평등에 대한 담론 질서가 벌여온 투쟁은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의 강화와 분개와 세계화 속 정체성의 정치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테러에 비견할 만한 반발적 행동들로 이어진다.

페미니즘의 대두와 주류적 담론의 논의에의 영입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시한 반발적 정서와 백래시, 그리고 이를 통한 여성협회가 두드러진다. 그 역사적 맥락은 1999년 있었던 군 가산점제 위헌판결에서 그 시대적 흐름의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담론에서는 페미니즘

은 곧 남성에 대한 희생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개념(정인경, 2016, 198쪽)으로 구축된다. 불안감과 박탈감의 유구한 역사는, '된장녀', '맘충' 등 다양한 폭력적 언어로 재현되어 왔다. 여성혐오의 정서를 부추기는 맥락 속에는, 때때로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 표현'이라는 해석이 주요 위치를 점유한다. 그러나 '일베를 위시한 남성들 간의 새로운 유대이자 놀이문화로서 사회성을 형성한다는 맥락으로 해석되는(우에노 지즈코, 2010/2012; 윤보라, 2013) 주장도 돌출된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담론화한, 여성가족부의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당성과 공격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정치 캠페인의 담론으로 노골화된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정치, 즉 고정관념에 대응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재해석 과정으로서 정치적 기획으로 '정의(justify)'되는 맥락이 숨어있다. 여성혐오의 확산,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선 부정과 전복은, 여성 정책의 성평등 의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대중적 욕구의 분출이라는 것이다(황정미, 2017, 41쪽). "이대담"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박탈감,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불안을 넘어선 포기, 허무주의의 팽배가 문제적 공간을 메운다. 일상적 차별에 대한 개별화된 분노가, 앞서 언급한 '정치의 개인화'의 맥락 속에서 젠더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정치화의 욕구로 표출된다.

진보 세력의 오랜 핵심 담론이었던 정체성의 정치가 보수 세력의 선거 전략으로 쓰이는 맥락은 비단 한국의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실 본 연구가 전범으로 삼은 그로스버그의 논의(Grossburg, 2018)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 극우 보수주의의 핵심 기조이자 공화당의 주요 선거의 핵심 의제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적 불안과 분노라는 정경을 경험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유기적 위기인 셈이다.

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탈인종, 불평등의 극복 등의 보편주의를 지향하지만, 좌파의 계급 중심 재분배 문제와 차이에 대한 극복,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차별의 문제들이 '배제와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돌출된다. 배타성이 만들어 낸 공감과 소통의 부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류 집단의 결집과 목소리 높이기라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사회의 백인 노동계급에서 불거진 억압과 차별과 이를 차용한 우파의 정체성 정치가 그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유럽 사회의 이주민 논의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적 맥락에서 정체성 정치의 본래적 가치로서 추구해온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오히려 파괴적 양상으로 확산된다. 선거 캠페인을 구사하고 분열과 파괴의 담론 정치를 이끈 한국 보수의 재집권 분투 역시 위의 흐름 안에 놓여있다 할 것이다. 취임식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 명명하고, 인수위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으며(경향신문, 2022, 4, 27), 그에 앞서 "다시 국민이 주인 되는 대

한민국 되찾겠다”(연합뉴스, 2022, 3, 7)는 발언으로 선거 유세를 마무리하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당선 소감(KBS, 2022, 3, 10)을 내놓았다. 이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보여준 담론 실천이자, 유구한 보수의 문법이 전지구적 맥락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수주의의 재집권 분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6년 미 대선의 결과를 직시한 그로스버그의 접근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유효한 차원을 넘어 공통된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앞선 경제적 진지전에서의 보수 언론의 여론 획책을 위한 전지 작업들은 공히 작금의 상황에 대한 피해의식의 고취와 그에 따른 굴욕, 울분의 정서 함양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 빈민가에서 이루어진 소위 ‘픽치기’에서 태동하여 일상불란한 ‘법과 질서’ 바로 세우기의 담론 실천과 그를 통한 대처리즘의 공고화 역시 유기적 위기를 구성하는 보수의 문법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를 사실상 이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집권은, ‘공정한 나라’, ‘살아 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법률신문, 2020, 11, 4)라는, 권력형 비리를 처단하고 맞서 끝내 ‘권력의 정점’에 오른(국민일보, 2022, 3, 10) 결과를 만들어냈다. 청년들의 박탈감, 패배감, 열패감을, 검찰 수장으로서 지휘권을 쥔 이를 수사하고 엄단한 것으로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서사를 구축한 것이다. 그에 대한 화답이 지지율로, 당선으로 나타났다. 정치, 문화적 진지전에서 혼란의 기획을 성공적으로 틈타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 (2) “권위의 위기”로서 사회적 신뢰 붕괴와 반지성주의의 확산

호프스태터(Hofstadter, 1963/2017)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일차적으로 “지성에 대한 경멸”이라 보았다. 반지성적 사고와 감정 속에는, 분노와 의심이자 삶의 가치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다(강준만, 2019, 29쪽). 그 출발이 메카시즘 속 우파 반지성주의에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적 어용 지식이라는 명명 속에서 대두된 반지성주의 용례의 활용과, 반페미니즘 남성의 여성혐오 등 일베 사례 등에서 동원됐다. 특히 앞선 정체성 정치와의 접합을 통해(서동진, 2017), 나아가서는 지성의 상업화와 뉴미디어화(최항섭, 2009)의 맥락 속에서, 즉 평등주의와 물질주의의 전통이 공히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이념을 넘어선 개념화(강준만, 2019)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반지성주의는 신앙에 가까운 확신과, 성찰하지 않는 맹목적 추종, 그리고 적대적 표현의 일상화 등에 의해 공고화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특기할 만하다.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 팽배 - 앞서 지적한 박근혜 탄핵과 조국 사태라는 이념 양단에서 3년 터울로 공히 발생한 맥락들을 겹쳐 - 와 유튜브의 등장 및 저널리즘적 실천에 대한 화답을 넘어선 맹신의 분위기는, 유튜버 생산자

차원에서의 저널리즘적 본령으로의 확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열린공감TV>와 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급부상한 주요 담론 생산자의 경우 전통적 저널리즘 생산자인 KBS 기자들보다 더 많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이에 구독자는 “이 시대의 알맹이이자 고갱이”라고 화답한다. ‘사실과 진실에 따른 합리적 보도’만을 추구하는 “언론”으로서 유튜브의 등장과 소비 확산은, 정치적 의제의 소위 ‘역유통’ 현상까지 낳았다. 예컨대 녹취록 공방, 배우자 의혹 등이 유튜브에 의해 제기되고, 이것이 전통적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단순히 유튜브 콘텐츠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의제화하지 못한 행위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분노, 불신의 정경이 펼쳐지고, 이것이 대선 국면을 지배하면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넘어선 해체를 부추긴 것이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보수 세력이 추구한 새로운 미디어 생산 지형에서의 진지전, 즉 유튜브 영토에의 선점 효과와 담론 생산자들의 정당 병행적 활동과 의제 공유 및 공통된 담론 실천의 종착점이라 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진보 세력 역시 조국 사태를 겪으며 팟캐스트 영역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상실과 복기, 그리고 회복을 노리는 진지전이 벌어졌으며, 그것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전면전으로 불거진 셈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 붕괴, 즉 권위의 위기는 앞서 수 차례 밝힌 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에 맞물려 있다. 진보적 정치 세력에서 대두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반지성주의의 선봉에서 권위의 위기를 추동하는 유튜브들에게 ‘잘못된 사법폐단을 바로 잡는’ 역할까지 부여한다. 반지성주의의 요건으로서 제시된 신앙적 맹신, 즉 종교적 추종은 유튜브의 활동에 대한 화답으로 명징하게 드러난다.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은 전·현직 기자와 방송작가, 시사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립각을 세운다. 반응은 소위 ‘친문’ 지지라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답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가 아닌, ‘진정한 저널리즘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그들의 행동과 화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열광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 콘텐츠에서 유사한 화답이 있었지만, 2021년 10월 4일 방송(열린공감TV, 2021, 10, 4)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만지일보의 반응<sup>1)</sup>에서 저널리즘 실천에 대한 열광이 선명하게 표출된다. “출입처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애들하고 비교가 안됨”, “멸종되어간다는 기사발견, 이런 분들이 기자다”, “우리 시민들의 진실보도에 대한 열광”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분노,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해내는 진정한

1) “열린공감TV는 도대체 어케 알았데...” <https://www.ddanzi.com/free/703787734>

‘저널리즘 실천’으로서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대한 지지와 맹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기자’로서 보여주는 사명감, 역할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댓글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이들의 편향된 시각이 아닌, ‘시민들’ 전체의 ‘진실 보도에 대한 열망’으로 치환된다.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나, 이에 화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에서는 소위 ‘기레기’라는 비난에 앞서, 기자를 ‘엘리트’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자 스스로 ‘엘리트’라 자칭하지 않음에도 엘리트의 굴레를 씌워 비난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기자 역할에 대한 엘리트시즘적 인식에는, 한국 사회의 근대적 국가 형성 과정에서 기자, 국가 관료 및 지식인들이 훈민(訓民)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임(강명구, 2013)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지사(志士)적, 다시 말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큰 일을 하는 기자로서의 모습(강명구, 2006)이 여전히 투영된 까닭이기도 하다.

전문직으로서의 기자는 사회에의 기여와 직업적 특권이라는 두 가지 맥락을 갖고 있다(강명구, 1993). 그 이념을 구체화하면 첫째 공적 지식 생산자로서의 지위 보장, 둘째 지식 생산을 통한 사회와 공익에 봉사, 셋째 노동 과정에서의 자율성 보장이 요체다(남재일, 2004). 지식 생산자로서 기자는 사회로부터 특권, 즉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부연하면, 공공선을 위해 숙련된 지식을 행사하는 것이 곧 기자의 전문직주의(Freidson, 2001/2007)며, 일련의 과정으로서 끊임 없는 전문 지식 습득과 글쓰기 및 영상 이미지 기술 활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소양(윤영철, 2001)을 배양하게 한다. 그러나 관행화된 저널리즘 생산의 풍토 안에서 전문직주의의 수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지형의 일대 변혁 속에서 지식 전문가의 상위 평준화가 겹쳐져 권위에 대한 위기를 넘어선 부정과 대체가 횡행한다.

기자의 비전문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튜브를 찾은 것이 무색하게, 성찰의 부재, 적대적 표현 등은 구독자 유지 및 확충을 위해 일상화된다. 유튜브에서 ‘저널리즘 실천’을 표방하는 유튜브에게서 제보자와의 관계, 뉴스 가치에 대한 고민,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해 구독자에게 영합하기 위해서라면 뉴스 가치와 사실 검증 등 기본을 후 순위에 놓지는 않는가에 대한 맥락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라이브 위주의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검증이 아닌 구독자에게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주는 맥락이 도드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취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제보’가, ‘보도’의 출발점이 되는 유튜브의 생산 관행은 저널리즘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사실 확인을 통한 진실 추구라는 본령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마침내 ‘이념적 공명’을 넘어서 적대적 발화가 재생산되는 맥락은, “오직 시민을 위해” 등과 같은 표상적 가치 뒤에 숨어버리고 만다.

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공히 드러나는 입장이다. 2022년 1월 6일 <열린공감TV>에 출연한 그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이 “기성 언론의 영향력이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며, “매스미디어의 구박을 받고 눈 밖에 났던 사람이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된 상황 자체가 20세기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가 묵시적 공동 행동으로 특정 후보를 띄워두 뉴미디어가 중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레거시 미디어가 압도적 위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말미에는 “언론개혁”에 목매지 않고, “기성 미디어 보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수준 있는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주문했다(한국일보, 2022, 1, 7).

전통적 저널리즘 생산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위임받겠다는 유튜버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보도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사생활 중심 보도 및 취재 윤리 위반 등의 문제 역시 제기된다(미디어오늘, 2021, 7, 30). 한국언론재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6조도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밝힌다. <열린공감TV> 스스로도 보도에 있어서 “황색 저널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을 만큼 가십성 자극적 내용을 유력 대선 후보 가족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내놓았다. 정치적 동기에 따라 사적인 것을 공적 영역으로, 정파적 담론화하는 사례라는 남재일 경북대 교수의 지적(미디어오늘, 2021, 7, 30)은 모든 시사 정치 콘텐츠에 공히 적용된다.

정치적 변곡점과 맞물린 새로운 미디어의 부상, 이른바 유튜버들의 득세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일시적 탈구리는 유기적 위기로 나타났다. 전통적 저널리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권위의 위기’를 넘어선 부정과 해체의 국면 전환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는 정치적 변동 속 미디어에 대한 신뢰 흔들기라는 혼란 상황을 조장하는 정치적 언동과 캠페인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 전략은 특히 ‘보수 유튜버’를 등에 업고 정치적 의제들을 확산시키는 보수주의의 정치와 통치의 연장선이다. 기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플레이어로 댄 트럼프의 반지성주의 담론 실천이 보다 직접적이고 직접적이었다면,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것은 보다 전망위적이며 다원적이었다. 보수 정당의 주요 정치인과 담론 생산자들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긴요하게 재생산하면서, 대선 정국은 물론 집권 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자 맥락으로 기능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시작 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과, 윤 대통령의 초기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시위와 사회적 논란 부추기기(한국일보, 2022, 8, 26)가 일례다.



요컨대 지식에 대한 경멸, 권위적 기자의 훈민적 엘리티시즘에 대한 반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 신앙적 확산, 맹신과 성찰의 부재, 그리고 적대적 담화의 일상화가 맞물린 반지성주의의 시대는, 2022년 대선을 추동한 주된 기치로써 혼تم당선의 질료로 작용했다 할 것이다.

## 4. 나가며

영국 사회에서 대처리즘의 태동을 예견하고 이를 개입적으로 진단한 홀과 동료들의 〈위기 관리〉, 미국에서의 트럼프 당선과 보수 질서의 담론 투쟁을 읽어낸 그로스버그의 〈혼란을 틈타〉은 요컨대 현실의 복잡다단한 국면을 맥락화하는 거대한 기획이다. 이른바 ‘국면분석’을 통해 현실에 대한 판단과 개입을 추구해보기를 주문한다.

실증주의 일변도의 한국 언론학 학제 속에서 문화연구는 일상적 주제들에 대한 전복적 해석 등의 연구 문제를 다양한 차원으로 수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석적 거리두기라는 한계에서, 그로스버그 스스로도 정치적 ‘치우침’에 대한 비판을 감내해왔듯(이기형·이종명, 2019, 108쪽),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개입적 연구 문제 제기에는 상당히 유보적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리뷰로서 국면분석의 전범으로 삼은 〈위기 관리〉, 특히 위기에 대한 맥락화와 정치적 기획의 역사를 읽은 〈혼란을 틈타〉에 주목했다. 무엇보다도 문화연구가 종종 견제되어왔던 방법론 차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서, 국면분석을 연구 방법 차원에서 분석 유형화 및 맥락화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선거 지형의 개괄과 언론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 안에 입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정체성의 정치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추상 수준에서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진지전’, ‘문제적 공간’, ‘유기적 위기’라는 분석적 실천이자 비판적 차원에서의 세 가지 논의로 나아갔다. 궁극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당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 보수 세력의 담론 실천을, ‘공정에 대한 분노’와 ‘권위의 해체와 대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전범의 방법론을 활용, 진단했다.

우선 선거를 둘러싼 ‘혼란’적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토대로, ‘정체성의 정치’가 구현한 정치, 경제, 문화 담론에서의 진지전 양상을 각각 풀어냈다. ‘공정’에 대한 포섭은 정책 공약집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경제 담론의 실천은 오래된 기획으로서 ‘베네수엘라화’에 대한 공당의 대표, 오피니언 리더의 협업들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거에 여론화하고자 시도한 조선일보의 시설들을 폭넓게 검토했다. 그 안에서 돌출되는 청년에 대한 분노 조장의 맥락도 담지했다. 끝으로

미디어 지형 변화로 촉발된 진실 투쟁의 점화를 읽어내면서, 이어지는 반동적 신보수주의의 기획이 추동한 울분과 분노의 문화적 혼란 야기를 짚었다. 공정에 대한 ‘법과 질서’ 바로 세우기라는 대응이 만들어낸 정치적 국면 전환, 마침내 ‘반지성주의’의 확산을 이끌어낸 권위의 위기이자 사회적 신뢰의 붕괴 맥락을 살핌으로써, 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한국 보수의 재집권에 대한 오래된 기획과 분투의 국면을 다층적으로 분석해냈다.

트럼프의 당선과 퇴임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변혁이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인권의 평가 속에서, 본 연구는 그 국면을 세밀하게 들여다 본 저작을 리뷰하고 이를 다시 한국적으로 적용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공유할 만한 논점을 제시하고 작금의 한국 상황을 ‘문제화’ 했다는 것에서 연구의 역할을 노정한다. 아울러 문화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텍스트와 담론차원의 분석을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진지전과 그 정경(문제적 공간)을 유기적 위기로 접합하는 거시와 미시 수준의 국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 특히 분석적 거리두기라는 학계의 풍토에 대한 일정 수준의 도전으로서, 문화연구의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는 개입적 문제 제기를 수행했다. 정치적 판단 혹은 입장을 넘어 사회 현상에 대한 진단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면분석을 통해 학계의 공적 문제 제기와 목소리 내기를 일정 부분 실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혹은 문제적이면서 논쟁적 결과에 대한 비판적 복기를 함께 수행하기를 초대한다.

## References

- Chae, J. S. (2009). The conservative counter-discourses on 'Candlelight Protes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3(1), 129-150.
- Cho, H. J. (2008). A critical review on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3, 7-46.
- Chosun Ilbo (2022, 5, 6a). *49% of men in their twenties took Yoon, 38% of women in their twenties took Lee "because of Lee Jun-suk's gender remarks"*.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EIXJT5XFPVC45CZPVWIFPPHB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EIXJT5XFPVC45CZPVWIFPPHB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Chosun Ilbo (2022, 5, 6b). *67% of South Koreans say "gender conflict is serious"... Why Korean men and women are angry at each other*.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Clarke, J. (2015). Stuart Hall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articulation. *Discourse*, 36(2), 275-286.
- eDaily (2021, December 15). *Presidential elections could be won or lost on real estate policy...Both Lee and Yoon distance themselves from Moon*.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9278848&mediaCodeNo=257>
- Electronic News (2021, November 5). *Yoon, Suk-yeol "Regime change by all means... 'Cho Kuk hypocrisy, Chumiae arrogance' a symbol of the process that brought down"*.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com/20211105000185>
-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On the practice of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ossberg, L. (2005). Cultural studies: The life of a project, the times of its form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2(1), 127-165.
- Grossberg, L. (2006). 'Does cultural studies have futures? Should it? (Or what's the matter with New York?): Cultural studies: Contexts and conjunctures'. *Cultural Studies*, 20(1), 1-32.
- Grossberg, L. (2018). *Under the cover of chaos: Trump and the battle for the American right*. London, UK: Pluto Press.
- Grossberg, L. (2019). Cultural studies in search of a method, or looking for conjunctural analysis. *New*

*Formations*, 96(96-97), 38-68.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London, UK: Palgrave.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2013). *Policing the crisis* (2nd ed.).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Hankyureh (2016, September 20). *The national businessmen's union collects mone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perfast permit... 'Mir' 'K-Sports'*.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3.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3.html)
- Hankyoreh (2019, July 24). *[ESC] Under the cover of chaos*.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903222.html](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903222.html)
- Hankyoreh (2022, January 17). *The proportion of "News, viewed on portals, YouTube" has increased even more*.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27622.html>
- Hankyoreh (2022, March 8).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Frontloads the Politics of 'Women's Exclusion'*.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3952.html>
- Hofstadter, R. (1963).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Vintage.
- Hwang, J. M. (2017). Gendering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 Public feminism and politics of identity. *Economy and Society*, 114, 17-51.
- JoongAng Ilbo (2021, March 31). *Opposition party "If I do it, it's romance; if others do it, it's infidelity"... Park residents who raised apartment rent by 9% in advance*.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5096#home>
- JoongAng Ilbo (2022, March 11). *Even after 're-election judgment', romance when I do it, affair when others do it - self-righteousness remains... even inside the ruling party laments*.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
- JoongAng Ilbo (2022, March 15). *'Men in their twenties' amplifying gender conflict, a good or bad thing for the new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406>
- JTBC (2016, October 24). *[Exclusive] Choi Soon-sil's PC file obtained... Received speech before President's speech*.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0632](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0632)
- Jung, I. K. (2016). Internet misogyny in a post-feminist era. *Issues in Feminism*, 16(1), 185-219.
- Kang, M. G. (1993). *Sociology of Korean media professional*. Seoul: Nanam.
- Kang, M. G. (2006). Media power and disciplined public sphere. *Historical Criticism*, 77, 67-94.

- Kang, M. G. (2013). Toward a formation of the Humin Public Sphere : Appropriating and reformulating Habermas. *Communication Theory*, 9(2), 10-51.
- KBS (2022, March 10). *Yoon, Suk-yeol "Victory of the great people"*.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2175&ref=A>
- Kim, J. H. (2019). Misuse of populism and construction of welfare populist discourse in South Korea : Analysis of conservative newspapers, 2009-2018.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5, 31-71.
- Kookmin Ilbo (2022, March 10). *Yoon Suk-yul's life...confronting the 'living power' and rising to the 'peak of power'*.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2037&code=61111111&cp=nv>
- Kookmin Ilbo (2022, March 18). *Democrats again 'apologize to the Cho Kuk'... Hwang Kyo-ik "I can't abandon" - Kim Yong-min "Stop touching"*.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6126&code=61111111&cp=nv>
- Korea Economic Daily (2022, January 16). *Kim Gun-hee, who took off the veil, recorded part 1... MBC Bulletin Board "Noisy"...*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1622067>
- Korea Economic Daily (2022, April 6). *[Exclusive] Ruling party's internal diagnosis, "Uncritical acceptance of civil society real estate policy led to presidential election defeat"*.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4068464i>
- Korea Times (2022, January 7). *Yoo, Simin "Lee Jae-myung's survival is proof that established media influence is not overwhelming"*.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0580001115?did=NA>
- Korea Times (2022, August 26). *Working as a day laborer and sponsoring 'progressive YouTube'... Attend rallies in front of Yoon's house whenever possible.*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910520000291?did=NA>
- Kwon, J. (2020). A genealogy of identity politics: Ethno-religious nationalism and globalisation. *Culture and Politics*, 7(2), 173-212.
- Kyunghyang Shinmun (2022, April 27). *Yoon Suk-yeol's government vision: 'A nation that leaps forward again, a nation of people who live well together'--The finishing touches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271629001>
- Law Newspaper (2020, November 4). *Yoon, Suk-Yeol "Living power should be investigated without a blind eye"*. Retrieved fro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420>

- Lee, K. H., & Lee, J. M. (2019). Relocating conjunctural analysis and the varied implications of <Policing the Crisis>: Legacies and new challeng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6, 73-115.
- Lee, K. H., & Cho, Y. H. (2015). Cultural studies as a future tense: Politics of context, phase, and subjectivity - Interview with professor Lawrence Grossberg. *Cultural Science*, 82, 222-248.
- Lee, J. M. (2021a). Polishing the crisis: Intervention of crisis discourse promoted by COVID-19 vaccine reports through conjunctural analysis. *Archives of the Korean Journalism Society*, 2021 Spring, 36.
- Lee, J. M. (2021b). The role of the YouTuber in square politics : A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2019 Taegukgi rally YouTub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6), 147-201.
- Lee, J. M. (2022a). Practice of counter-discussion on Jeju 4·3: Focusing on the Jeju 4·3 contents of the political contexts in YouTube. *Media, Gender & Culture*, 37(1), 69-110.
- Lee, J. M. (2022b). The age of unbelief, YouTube of blind faith - A mess in YouTube's 'journalism practice' that shakes the presidential election. *Kwanhun Journal*, 162, 21-26.
- Lee, J. M. (2022c).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 about so-called 'Youtube Journalism':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journalist. *Media and Society*, 30(1), 51-98.
- Lee J. M. (2022, February 28). *YouTube saved the country? [Good Country Issue Pape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YouTube's journalism practice in the fac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ssian. Retrieved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813292659040>
- Lee, J. M., & Lee, S. A. (2017). Challenging abnormality of psychopathy : Focused on the drama <It's okay, That's love>. *Media, Gender and Culture*, 32(1), 41-74.
- Lee, S. M., & Lee, S. G. (2015). The Sewolho, state, and the medi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Imaginary of the State' represented in the opinion articles of <Chosun-ilbo> and <Hankyoreh>. *Media and Society*, 23(4), 5-66.
- Maeil Business (2022, March 10). *Real estate rage - romance when I do it, infidelity when others do it...The people wanted a new face*.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09755/>
- Maeil Business (2022, March 17). *Ruling party in 'Cho Kuk swamp' again*.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politics/10256677>
- McChesney, R. W. (2003). The problem of journalism: A political economic contribution to an explanation of the crisis in contemporary US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4(3), 299-329.

- Media Today (2019, November 30). *Professor Kang Joon-man said, "It is impossible to reform the media in a society that wants the media of hangover soup"*. Retrieved from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4)
- Media Today (2021, July 30). *Yoon Suk-yeol's wife's 'private life' report Open Mind TV asks for ethics in reporting*. Retrieved from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2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28)
- Money Today (May 16, 2021). *One in four men support Lee Jun-suk...No. 1 in the People's Power Party*. Retrieved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615274212040>
- Nam, J. I. (2004). *Objectivist habitus in Korean newspaper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National Future Research Institute (2019, April 18). *Intensifying conflicts across society...Gender violence, fine dust, and physical safety cravings <Social field> '2019 Zeitgeist' seen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66](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66)
- Newspim (2022, April 1). *Acquisition committee reverts real estate policy to before 'Moon Jae-in'...tax rate relief 'tinkering'*. Retrieved fr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01000118>
- Open Mind TV (2021, October 4). [Exclusive Emergency live broadcast] *Yoon Suk Yeol's mother-in-law Choi Eun-soon's phone call was a dramatic success!* Retrieved from <https://youtu.be/h3VY5EJYwK4> (콘텐츠 망실)
- PenandMikeTV (2018, January 5). *The 'Failure of Venezuela' reminds me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
- Seouldaily (2020, January 12). [Neologism Dictionary] *"Under the cover of chaos"*.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MAJ7XGV>
- Sontag, S. (1978).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Vintage.
- The Segye Times (2022, January 29). *Democratic Party can't cross the 'river of the Cho Kuk' [Nees+]*. Retrieved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9503666?OutUrl=naver>
- TV Chosun (2016, July 26). [TV Chosun Exclusive] *Blue House chief Ahn Jong-beom supports raising 50 billion won for 'Culture Foundation Mir'*. Retrieved from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 Ueno, C. (2010). *Onna Girai- Nippon no misogyny*. Tokyo: Kinonuniya company.
- Yonhap News (2019, September 10). [Fact Check] *1.18 million articles on Cho Gook...10 times Choi Soon-sil's?*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45900502>

- Yonhap News (2021, June 26). *Another 'real estate I do, romance others do, affair'... Ruling party embarrassed by 5.6 billion-debt Cheong Wa Dae Kim*.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6052100001>
- Yonhap News (2022, March 7). *Yoon Suk-yeol "I will bring back a Korea owned by the people again"*.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156300001?input=1195m>
- Yoon, B. (2013). Ilbe and misogyny: "Ilbe is everywhere and nowhere". *Progressive Criticism*, 57, 33-56.
- Yoon, Y. C. (2001). Online journalism and the news paradigm shift.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7, 182-213.

최초 투고일 2022년 10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1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2월 03일



## 부록 1. 국문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강명구 (2006). 언론권력과 훈민(訓民)적 공론장. <역사비평>, 77호, 67-94.
- 강명구 (2013). 훈민공론장(訓民公論場)의 이론적 구성을 위하여: 하버마스 빌리기, 비켜가기, 넘어 서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9권 2호, 10-51.
- 강준만 (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22권 1호, 27-62.
- 국가미래연구원 (2019, 4, 18). 사회 전반적 갈등 심화...젠더 폭력, 미세 먼지 등 신체적 안전 갈구 <사회분야>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Retrieved from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66](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66)
- 국민일보 (2022, 3, 10). 윤석열 삶...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다 '권력 정점' 오르다.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2037&code=61111111&cp=nv>
- 권정기 (2020). 정체성 정치의 재보학: 인종·종교적 민족주의와 세계화. <문화와 정치>, 7권 2호, 173-212.
- 김주호 (2019). 포퓰리즘의 오용과 복지포퓰리즘 담론의 구축: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2009-2018. <사회이론>, 55호, 31-71.
- 남재일 (2004). <한국 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동진 (2017). 증오, 폭력, 고발: 반지성주의적 지성의 시대. <황해문화>, 94권, 87-103.
- 법률신문 (2020, 11, 4).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Retrieved fro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420>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33-56.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호, 182-213.
- 이기형·이종명 (2019). 문화연구가 추구하는 '국면분석'의 활용과 재구성 작업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96호, 73-115.
- 이기형·조영한 (2015). 미래시제로서 문화연구: 맥락, 국면, 주체성의 정치학 - 로렌스 그로스버그 교수와의 인터뷰. <문화과학>, 통권 82호, 222-248.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언론과 사회>, 23권 4호, 5-66.
- 이종명 (2021a). <위기 관리 聒耳(Polishing the Crisis)> - 코로나19 백신 보도가 조장하는 위기 담론을 국면분석으로 개입하기. <한국언론학회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36.
- 이종명 (2021b). 광장 정치와 집회 유튜버의 활동: 2019년 태극기 집회 참여관찰을 통해 본 유튜버의 역할과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제65권 6호, 147-201.
- 이종명 (2022a). 제주4·3에 대한 대항적 담론 실천: 시사정치 유튜브 채널의 제주4·3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권 1호, 67-108.
- 이종명 (2022b). 불신의 시대, 맹신의 유튜브 - 대선 국면을 뒤흔드는 유튜브의 '저널리즘 실천' 속 난맥상. <관훈저널>, 통권 162호, 21-26.
- 이종명 (2022c).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 집단의 인식 연구: 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30권 1호, 51-98.
- 이종명 (2022, 2, 28). 유튜브가 나라를 구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의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 타진하기. <프레스리언>. Retrieved from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813292659040>
- 이종명·이승아 (2017). 일상으로 들어온 정신병: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나타난 정신병 재현 읽기.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41-74.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권 1호, 185-219.
- 조항제 (2008).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호, 7-46.
- 채장수 (2009).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한국정치학회보>, 43권 1호, 129-150.
- 최항섭 (2009).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3호, 287-322.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114호, 17-51.
-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On the practice of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박호진 (역) (2007).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서울: 아카넷.
- Grossberg, L. (2005). *Cultural Studies: The life of a project, the times of its formations*. 박지영 (역) (2005). 문화연구: 기획의 역사, 그 구성체의 시대. <언론정보연구>

구), 42권 1호, 127-166.

Hofstadter, R. (1963).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Vintage. 유강은 (역) (2017). <미국의 반지성주의>. 경기: 교유서가.

Sontag, S. (1978).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Vintage. 이제원 (역) (2002). <은유로서의 질병>. 11-123. 서울: 이후.

Ueno, C. (2010). *Onna Girai-Nippon no misogyny*. Tokyo: Kinonuniya Company. 나일등 (역)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부록 II. 언론 보도자료

- 경향신문 (2022, 4, 27). 윤석열 정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 및  
밋한 인수위 마무리 수순.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271629001>
- 국민일보 (2022, 3, 18). 민주 또 '조국 사과'... 황교익 "난 못 버려"·김용민 "그만 건드려"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6126&code=61111111&cp=nv>
- 뉴스핌 (2022, 4, 1). 인수위, 부동산 정책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세을 완화 '만지작'.  
Retrieved fr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01000118>
- 매일경제 (2022, 3, 10). 부동산 분노·내로남불 반감...국민은 새 인물을 원했다.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109755/>
- 매일경제 (2022, 3, 17). 또 '조국의 늪'에 빠진 與.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politics/10256677>
- 머니투데이 (2021, 5, 16).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국민의힘 당대표 1위 '과죽지세'.  
Retrieved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615274212040>
- 미디어오늘 (2019, 11, 30). 강준만 교수 "해장국 언론 원하는 사회에선 언론개혁 불가능".  
Retrieved from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04)
- 미디어오늘 (2021, 7, 30). 윤석열 부인 '사생활' 보도 열린공감TV, 취재윤리를 묻다. Retrieved  
from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2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28)
- 서울경제 (2020, 1, 12). [신조어 사전] 혼툼.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MAJ7XGV>
- 세계일보 (2022, 1, 29).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걸까 [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9503666?OutUrl=naver>
- 연합뉴스 (2019, 9, 10). [팩트체크] 조국 기사 118만건...최순실의 10배?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45900502>
- 연합뉴스 (2021, 6, 26). 또 '부동산 내로남불'...與, 56억 빚투 靑김기표에 당혹.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6052100001>
- 연합뉴스 (2022, 3, 7). 윤석열 "다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되찾겠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156300001?input=1195m>

- 열린공감TV (2021, 10, 4). [단독특종! 긴급생방] 윤석열 장모 최은순 전화통화 극적 성공!  
Retrieved from <https://youtu.be/h3VY5EJYwK4>
- 이데일리 (2021, 12, 15). 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李·尹 모두 文과 거리두기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9278848&mediaCodeNo=257>
- 전자신문 (2021, 11, 5).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조국 위선, 추미애 오만’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com/20211105000185>
- 조선일보 (2022, 5, 6a). 尹 적은 이대남 49%, 李 택한 이대녀 38% “이준석 젠더말언 때문”.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EIXJT5XFPVC45CZPVWIFPPHB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EIXJT5XFPVC45CZPVWIFPPHB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조선일보 (2022, 5, 6b). 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06/7GH3AXAYIJHQVK6EDV4CX75P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중앙일보 (2021, 3, 31). 野 “내로남불 결정판”...아파트 임대료 9% 미리 올린 박주민.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5096#home>
- 중앙일보 (2022, 3, 11). ‘재보선 심판’ 뒤에도 내로남불·독선 그대로...典내부서도 한탄.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
- 중앙일보 (2022, 3, 15). 젠더갈등 증폭 ‘이대남’, 새 정부에 득일까 실일까.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406>
- 펜앤드마이크TV (2018, 1, 5).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보면 문제인 정부가 떠오른다. Retrieved  
fr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
- 한겨레 (2016, 9, 20). 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미르’ ‘K스포츠’ 판박이.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3.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3.html)
- 한겨레 (2019, 7, 24). [ESC] 혼툼.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903222.html](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903222.html)
- 한겨레 (2022, 1, 17). “뉴스, 포털·유튜브로 본다”는 비율 더 높아졌다.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27622.html>
- 한겨레 (2022, 3, 8). 20대 대선, ‘여성 배제’의 정치를 전면화하다. Retrieved from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3952.html>
- 한국경제 (2022, 1, 16). 베일 벗은 김건희 녹취록 1탄… MBC 게시판 시골 “이러려고…”.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1622067>
- 한국경제 (2022, 4, 6). [단독] 與 내부진단 “시민사회 부동산정책 무비판적 수용해 대선 패배”.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4068464i>
- 한국일보 (2022, 1, 7). 유시민 “이재명이 살아남은 건 기성 언론 영향력 압도적이지 않다는 증거”.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10580001115?did=NA>
- 한국일보 (2022, 8, 26). 일용직 뛰며 ‘진보 유튜브’ 후원… 틈만 나면 尹자택 앞 집회 참석.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910520000291?did=NA>
- JTBC (2016, 10, 24).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0632](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0632)
- KBS (2022, 3, 10).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2175&ref=A>
- TV조선 (2016, 7, 26). [TV조선 단독] 청와대 안중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Retrieved from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 혼تم당선: 윤석열과 보수 재집권 분투

<Under the Cover of Chaos>를 통해 본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분석

이종명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본 연구는 그로스버그가 제안한 국면분석의 구체적 모델을 전범으로 삼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의 담론 정치를 분석한다. 보다 장기적인 '시대(epoch)'적 맥락과, '진지전', '문제적 공간'의 개념들을 짚으면서 추상적 진단을 넘어선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실천 차원의 논의로 우선 "진지전" 차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담론의 발화를 확인한다. 발화 주체는 홀의 <위기 관리>에서도 제안한, 정치 캠페인 수사, 언론 보도, 수용자 화답(시대적 맥락에서 독자 투고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답으로 대체하여)을 아우른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국면에서 돌출된 '불안감' 조장, '청년', '젠더' 담론에서의 '격리'와 '해체'가 "문제적 공간"에서 맥락화되는 현상을, 위기와의 접합으로 읽어낸다. 이를 통해 윤석열과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의 재집권 전략을 "공정"에 대한 법과 질서 정립, "사회적 신뢰"에 대한 해체와 대체로 규정한다.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사회의 신 보수 질서 정립이 끼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여전히 드리운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력 교체를 넘어 새로운 담론 질서의 등장과 대두가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을 국면적으로 읽어 개입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개진한다.

핵심어 : 위기 담론, 접합, 국면분석, 대통령 선거, 급진적 맥락주의